

# 정비사업 신속 추진 '머리 맞대'

### 전주시, 10개 구역 조합장들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장들과 머리를 맞대었다.

시는 현재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10개 구역의 조합장들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지난 13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조합장들과 정비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참석한 조합장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각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의견 지양, 통합심의 운영제도 도입과 관계기관(부서) 긴밀한 협의를 통

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다.

또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다수인 민원이 빈번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담당자 간 업무연계가 다소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장 직속부서로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완화 검토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

획이다.

시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진행 절차 및 각종 분쟁 사례를 교육하는 '도시정비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조합 실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시행 및 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방안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시기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정비해 각종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통장 조직 활성화... 전주시민·행정 가교역할 최선"

###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17대 김도영 신임회장 취임

전주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이끌어갈 제17대 전주시 통장연합회장으로 김도영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시는 16일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통장연합회는 시책홍보와 주민 불편 사항 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역지원 활동 등 행정에 활약하는 전주시 35개동 통장협의회회의의 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범준 전 통장연합회장은 "회원들이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영 신임회장은 "행정 조직의



전주시는 16일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 뿌리내려진 통장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

주시의 큰 주춧돌이 되는 통장연합회가 구심점이 돼 시정 전반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최아영 기자

# 전주시설공단, 설 연휴 장사시설 정상 운영

### 효자추모공원 내 봉안당·봉안원·자연장지·효자공원묘지... 전주시승화원은 22일만 운영 중단

설 연휴 기간동안 전주 효자추모공원 내 '봉안당과 봉안원, 자연장지, 효자공원묘지' 등 장사시설이 정상 운영된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전주 공설 장사시설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16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성묘객들은 장사시설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제례실 이용과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제한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설부터 묘원 내 '조화(造



효자추모공원 봉안원.

花)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유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적인 성묘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장사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주시승화원은 설

당일인 22일 하루만 운영을 중단한다.

또 성묘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설 당일 효자공원묘지 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공단은 성묘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맞이 특별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설에도 많은 성묘객들이 우리 장사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환경을 위해 성묘 시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 전주시보건소, 온누리상품권 1만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전달

전주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시는 16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오

려움을 해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시는 16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오



전주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는 2월 1일까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전주시보건소 등 4곳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한다.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공무원과 시민에게는 헌혈증과 함께 혈액검사, 혈액형,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검사, 에이즈검사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헌혈증은 향후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13일 사랑의 헌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1만매를 구입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주시 공무원들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

전주시 완산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제(임대차 시장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주민들의 실무담(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기간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2023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자들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시스템(itms.mti.go.kr)을 통해 가능하다.

완산구는 "1월 중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 파일 및 홍보 전단지 등 부동산 중개업협회(완산지회)와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 계획을 밝혔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다.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공원·하천 시설물 환경정비

완산구청장은 2023 설맞이에 앞서 전주시 도심 주요 도시공원 143개소와 하천 20개소의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에 나섰다.

도심속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공원과 '삼천·점주천'은 도·시민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완산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원 및 하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물 점검, 환경정화, 생활쓰레기, 오물수거, 공원내 화장실 청소, 비품 점검' 등 쾌적한 공원과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직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정비에 대하여는 자체인력을 활용한 보완조치하고, 전문수리업체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설 명절전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명절기간 공원정비인력 상시

배치로, 공원 이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명절기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동절기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공원과 하천 시설 정비를 통해 명절에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 환경정비 활동과 관리를 통해 공원과 하천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